

Jesus – Korean

1.1

1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1.14-15

14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1.21-27

21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22 못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23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24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25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26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27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이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 도다 하더라

1.32-34

32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33 온 동네가 문앞에 모였더라

34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2.1-12

1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2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이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3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쌔

4 우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5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6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7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람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8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9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10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11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4.35-41

35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36 저희가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37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38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며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39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40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5.22-24

22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23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24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5.35-42

35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36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37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움을 허치 아니하시고

38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흰화항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39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흰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40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41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42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열 두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7.18-23

1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19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20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22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훼방과 교만과 광패니
 23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9.2-8

2 열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3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4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5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6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할는지 알지 못함이라
 7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8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던라

12.28-31

28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아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29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1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14.10-11

10 열 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 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11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 줄 기회를 찾더라

14.44-46

44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45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46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15.6-15

6 명절을 당하면 백성의 구하는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 주는 전례가 있더니
 7 민란을 꾸미고 이 민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8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주기를 구한대
 9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10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줄 알이러라
 11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12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라
 13 저희가 다시 소리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4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이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15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15.33-39

33 제 육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하더니
 34 제 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35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36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움에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 주나 보자 하더라
 37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38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니라
 39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15.42-46

42 이 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43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44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지 오래냐 묻고
 45 백부장에게 알아 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 주는지라
 46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으매

16.1-7

1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2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찌기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3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요 하더니
 4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5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6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7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하라 하는지라

16.15-16

15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6.19-20

19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